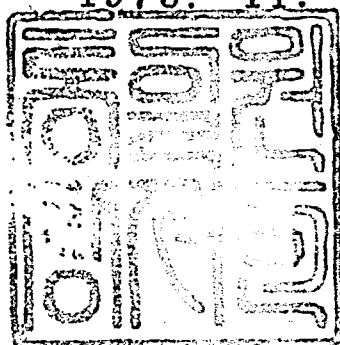


北韓의 聯邦制統一主張에 대한 批判과 對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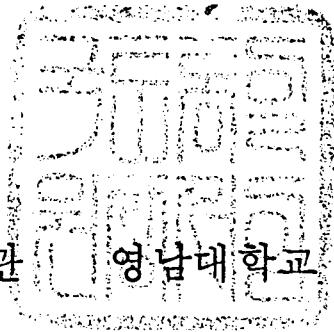
1973. 11.



국 토 통 일 원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하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년 11월 일



연구기관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책임자 이 창 우

위원 신도성 · 김상진 · 이영호

目 次

1. 세미나 進行概要	3
2. 開 會 辭	7
嶺南大学校 総長 李 瑄 根	
3. 主題発表文	11
－北韓의 聯邦制 統一主張의 分析과 評價－	
嶺南大学校 教授 李 昶 雨	
4. 討 議 内 容	35
5. 結 論	71

1. 세 미 나 進 行 概 要

統一問題세미나 (非公開)

主 題 北韓의 聯邦制統一 主張에 對한 批判과 對策

主 權 嶺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日 時 1973. 12. 1 (午前 11시 - 午後 4시)

場 所 統一問題研究所세미나室

— 日 程 —

12月 1日 (土)

11:00	開 會	
11:00 - 11:20	開會 辭	總 長
11:20 - 11:40	發 題	李昶雨 (教授)
12:00 - 13:00	昼 食	本研究所
13:00 - 16:00	討 論	李昶雨 (司會)
16:00 - 16:10	閉 會	

参 加 者

(가나다順)

1. 金 文 達 (国 際 法) 慶北大 教授
2. 李 瑄 根 (歷 史 学) 嶺南大 總長
3. 朴 相 雨 (政 治 学) 嶺南大 教授
4. 朴 泰 岩 (") 教育大 教授
5. 송 영 대 (") 国土統一院
政治外交担当官
6. 李 映 雨 (") 慶北大 教授
7. 李 榮 一 (") 国土統一院
政治外交担当官
8. 李 利 雨 (") 嶺南大 教授
9. 鄭 雲 章 (国 際 法) 嶺南大 教授
10. 崔 在 元 (政 治 学) 韓社大 教授

2. 開 会 辞

嶺南大学校 総長 李 瑄 根

開 會 辭

오늘 本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主催의 「統一問題研究세미나」에 市内 關係專門教授 및 国土統一院에서 오신 두분을 모시고 「北韓의 聯邦制統一主張에 대한 批判과 對策」이라는 主題를 갖고 비록 小數이지만 머리를 맞대고 같이 研究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된 것을 本人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本校의 이 研究所에서는 그동안 統一問題에 관한 理論的 生産을 위하여 많이 努力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祖國의 平和統一이 달성될 때까지 이 努力은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來년에는 같은 分斷國家인 西獨과 더불어 分斷國家의 問題解決을 위하여 共同으로 研究하기 위해서 國際會議를 갖고져 現在 所長인 慎道晟教授가 訪獨中에 있습니다. 可及的이면 關係諸國家의 많은 參加를 얻는 國際學術會議가 되어 祖國의 平和統一을 하루라도 앞 당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最近에 北韓에서 提起된 聯邦制는 朴大統領께서 지난번 國防大學 卒業式때 말씀한 바와 같이 虛構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問題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眞摯한 討議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지난날 6.25以前에 이미 北韓側이 行한 對南協商時 그들의 協商論

이 어디까지나 政略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더우기 近者에 와서 韓國問題가 脱유엔化하고 世界가 「南北對話」에 그 視線을 集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앞으로 提起될 南北間의 問題에 대하여는 더 많은 理論的·學術的인 準備 및 對策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와같은 세미나는 小規模이면서 關係專門教授만의 모임인만큼 本人으로서는 期待가 매우 큽니다. 좋은 成果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들 대합니다.

3. 主 題 発 表 文

嶺南大学校 教授 李 昶 雨

目 次

一. 問題提起	3
二. 北韓의 聯邦制 提案의 経緯와 内容	5
三. 聯邦制 提案의 分析과 評價	12
四. 結 論	20

一. 問題提起

<7.4 南北共同声明>을 契機로 시작된 南北對話는 昨年과는 달
리 今年에는 술한 險路를 겪어오던중 結局은 中斷狀態에 이르르고
말았다. 祖國의 平和的統一이라는 民族的 至上課題를 두고 4半世
紀만에 처음 試圖된 南北對話가 停滯하게 되자 朴大統領은 6月
23日 「南北共同声明 精神에 立脚한 對話의 具體的 成果를 위해
誠實과 忍耐로서 계속 努力하여 緊張緩和와 國際協助에 도움이 된
다면 北韓의 國際機構加入을 反對하지 않으며 그리고 유엔 多數會
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 前提下에 北韓과 함께
유엔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7個項目에
걸친 平和統一外交政策을 闡明함으로서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을
實質적으로 提議하였다.

이에 대하여 金日成은 全日 밤 「체코」共産黨 總秘書 「구스타브
후사크」 歡迎 平壤市 群衆大會에서 소위 祖國統一 五個項을 提案하
였는데 거기서 從來 간결적으로 되풀이해 온 聯邦制統一案을 이번
은 「高麗」라는 王朝名을 붙여 提議하였다. 即, 金日成은 「高麗
聯邦共和國」이라는 單一國號아래 유엔에 加入해야 한다 하면서
「6.23 宣言」에 대하여 積極 反對하였으며 지난 11월 15일 유엔

에서도 北韓代表는 再次 反對를 闡明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北韓 提議의 聯邦制案은 비록 몇차례에 걸쳐 行해지고 있으나 内容面에는 何等의 差異가 없고 다만 이번의 「高麗聯邦共和國」의 主張은 第28次 유엔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서 有利한 立場을 爭取키 위한 숙셈이 크게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聯邦制案을 統一方案의 하나로 提示하는데는 여러가지 問題가 많다. 특히 理念을 달리하고 있는 南北韓 關係에서 適用되기에는 理論的으로나 現實的으로나 많은 問題點이 殘存하고 있다. 더우기 北韓側이 提議한 聯邦制案을 後述하는 바와 같이 그 概念이 모호할뿐 아니라 그 提案背景을 嚴密히 檢討하여 보면 眞正한 뜻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은 甚 疑問이 많다.

그러나 筆者가 이 聯邦制案에 대하여 眞摯하게 問題를 다루고자 하는데는 몇가지 理由가 있다.

첫째로, 이 聯邦制統一案이 北韓의 統一戰略과 어떠한 聯関이 있는가 하는 것을 分析해 볼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70年代의 北韓의 統一戰略은 比較的 柔軟性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平和共存理論」 및 「統一戰線戰術」과 聯邦制와의 關係는 어떤가는 매우 重要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는 이 提案이 对内外的으로 說得力을 갖는 宣傳으로 크게

利用될 可能性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問題이다. 특히 最近 유엔을 둘러싼 國際政勢의 氣象은 반드시 우리에게 有利하게만 展開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待備한 보다 積極적인 政策 樹立이 緊要하다.

위의 같은 點을 考慮할때 이 聯邦制 主張에 대한 充分한 分析· 檢討는 오늘의 對内外情勢로 미루어 가장 重要한 課業인 것이다.

二. 北韓의 聯邦制提案의 經緯와 內容

問題되고 있는 北韓의 聯邦制案은 最近 發表된 9月 26日 北韓 政府備忘錄에서도 再強調되고 있는 것이지만 처음으로 提案된 것은 韓國의 「4.19」革命後의 일이다. 卽, 同革命後 南韓에서 民主黨 政權이 樹立되고 平和統一論爭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1960年 8.15 記念式에서 행한 演說에서 金日成은 統一方案으로서 다음과 같이 提案하였다.

첫째로 外勢 干涉없이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 自由로운 南北 總 選舉를 實施한다.

둘째로 南北總選舉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 韓聯邦制를 實施한다. 南北聯邦制는 南北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独自の 活動을 保障하는 同時에 兩政府代表로 構成되는 最高民族委員會를 組織하며 主로 南北의 經濟, 文化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한다.

세째로 萬一 上記 提案에 同意하지 않으면 南北의 産業界代表로 構成되는 純全한 經濟委員會라도 構成할 것을 提議한다.

이 聯邦制提案은 그 후 있었던 韓國의 5.16 革命으로 因한 情勢安定과 더욱더 北韓内部에서의 戰爭準備政策으로 實質上 中斷되었다가 1969年 8.15 記念式上에서 當時 第一副首相(現在 政務院總理)의 演說에서 再次 提起되었다. 이 時期는 北韓의 「平和統一」政策 및 戰略의 再定立期였으며 따라서 새로운 情勢 適應을 위한 措置였다. 그후 70年代에 들어오면서 國際情勢의 解氷을 틈타서 1971年 4月 12日 北韓 外相 許談은 八個 項目的 統一方案을 提起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南北聯邦制가 提案되었다. 그것은 1960年 金日成의 提案과 大体로 同一한 內容이었다.

南北對話의 始作과 함께 金日成은 1972年 9月 17日 南北聯邦制案을 日本의 「毎日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 提案하였다. 金日成은 同會見에서 「平和的 祖國統一을 하루 빨리 實現하기 위해서 우선 南北聯邦制를 實施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主張하는 南北聯邦制는 南北의 現存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朝鮮民主主

義人民共和國政府와 大韓民國政府의 代表로 「最高民族會議」를 組織하여 南北間에 提起되는 政治, 經濟, 軍事, 文化的 諸問題를 解決함으로써 民族的 團結을 이룩하자는 것이다」라고 說明하였다.

그리고 同聯邦制로 因하여 展開될 南北關係의 樣相에 關해서는 「南北間에 보다 廣範한 接觸과 往來가 實現되고 經濟, 文化的 交流도 円滑하게 實現될 것이다. 南北이 經濟的으로 合作하고 交流를 하면 共和國 北半部의 發達한 重工業과 地下資源을 利用하여 南朝鮮의 經濟狀態를 빠르게 改善할 수 있으며 南北朝鮮人民의 生活에 극히 有益할 것이다. 南北의 經濟人과 文化人, 藝術家가 서로 南北을 오가면서 體育競技와 藝術公演을 하며 國際 「스포츠」 競技와 國際藝術團에 南北 單一 「팀」과 單一藝術團을 構成해서 보낼 수 있다. 記者도 自由로히 往來하여 取材活動을 하며 平壤과 서울의 記者代表部와 新聞社의 支局을 設置하여 南北間에 新聞雜誌를 交換하는 活動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언하였다.

한편 나라의 統一을 위하여 聯邦制가 갖는 意義와 役割에 關해서 「이와 같이 南北聯邦制를 實施하여 南北間에 모든 分野에서 廣範한 交流와 往來가 實現되면 南北間의 不信과 차디찬 感情은 解消되어 서로 理解하고 信賴하는 분위기가 造成됨으로서 民族的 團結이 容易하게 이룩될 것이며 南北間에 信賴의 분위기가 造成

되어 民族的 團結이 이룩되면 어떠한 外勢의 干涉도 받지않고
民主主義的 南北總選舉를 통해 全朝鮮統一政府를 樹立할 方法으로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 南北對話가 本軌道에 들어감에 따라 第二次(73年 3月
15 - 16日), 第三次(73年 6月 13- 14日) 南北調節委員會에서
「무엇보다도 北과 南사이에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하고 緊張狀態를
가시게 하는 것은 現時機 誤解와 不信을 풀며 南北關係를 改善하
고 平和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가장 關鍵的인 問題」라고 力說하였
다. 그리고 武力增強과 軍備競争 中止, 外國軍隊 撤去, 軍隊와 軍
備의 縮小, 外國으로부터의 武器撥入 中止, 平和協定 締結等 소위
「軍事 五原則」을 主張했다.

이리하여 南北調節委員會에서 韓國側의 經濟, 文化分野의 交流先行
및 南北社會 完全 開放 主張과 北韓側의 軍事問題 優先 解決主張
이 서로 맞서자 南北對話는 停頓되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朴大
統領의 6.23 特別宣言이 發表되자 同日 밤 金日成은 前述의
「후사크」歡迎席上에서 「高麗聯邦共和國」名稱을 最初로 拳論하
면서 이른바 다음과 같은 祖國統一을 위한 五大綱領」을 主張하였
다. 即,

1. 南北사이에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와 緊張狀態의 緩和

2. 北과 南 사이에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의 實現

3. 北과 南의 各階 各層 人民들과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의 召集

4. 「高麗聯邦共和國」의 單一國號에 의한 南北聯邦制實施

5. 單一한 高麗聯邦國號에 의한 유엔加入등을 主張하였다.

以上에서 北韓側이 提案한 聯邦制統一 主張을 概略적으로 살펴 보았는데 그 어느것도 內容上으로는 크게 差異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南北對話를 起點으로 그 前後의 提議를 分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異點이 있음은 留意해야 할 것이다.

첫째, 南北對話 以前에는 獨立的인 여러가지 統一方案을 提議하고는 그중의 一을 要求하여 왔는데 反하여 對話以後에는 이를 止揚하고 聯邦制를 다른 統一方案과 不可分하게 關聯시켜 提議하고 있다는 點.

둘째, 南北對話 以前에는 宣傳의이거나 大衆的 鬭爭課題로서 南北聯邦制를 提起한데 비해 對話 以後에는 宣傳과 大衆的 鬭爭課題로서는 勿論 南北間 對話의 主題로서 浮刻시키고 있는 點.

세계, 南北對話 以前에는 南北聯邦制 實現에 何等의 前提條件을 붙이지 않았는데 비해 지금은 南北間의 軍事問題 優先 解決의 條件을 삼고있는 點등이라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點을 北韓의 聯邦制提案이 多分히 宣傳 및 心理戰面의 效果를 노리고 있는 意圖的인 提案으로 分析된다.

그리고 北韓이 提案해 온 聯邦制는 國際法上의 傳統的 概念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모호한 點이 많음을 指摘할 수 있다. 北韓側은 主張하기를 「南北聯邦制는 汎「아랍」主義와 같이 條約에 의한 國家의 單純한 結合으로 加入國들이 同意한 事項에 관해서만 統制가 可能한 國家聯合과는 本質的으로 相異하며, 또한 美國과 「스위스」「캐나다」의 聯邦과도 相異하다. 오랜 歷史를 거처온 한 民族, 한 國家안에서 外交侵略者에 의한 民族分裂과 國土兩斷을 끝장내고 祖國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過渡的 措置이다. 独立的 中央政府가 없는 條件下에서 統一的인 國家施策은 못하나 合意에 이른 問題를 共同으로 解決하며 廣範한 接觸과 對話의 實現 및 諸般交流를 圓滿하게 實現할 수 있게 함으로서 統一的인 發展을 期할 수 있다」라고 性格을 밝히고 있다.

即, 그들 南北聯邦制는 南北에 各各 두개의 主權國家가 存在하고 있는 것을 條件으로 하고 있다는 意味에서 美國과 「스위스」

等の 聯邦 (Federation) 과 區別되어 한편 統一을 目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의 國家聯合 (Confederation) 等과도 區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嚴格하게 文句들을 分析할때는 聯邦보다는 國家聯合의 性格이 길고 있으나 순수한 意味의 國家聯合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北韓 主張의 聯邦制統一案은 概念 自体가 不明하고 극히 애매한 것이다. 더우기 지금까지의 提案內容을 檢討해 볼 때 그들은 聯邦의 國号 (그것도 最近이지만) 必要性 및 實施後의 效果等에 關해서 抽象的으로 言及했을 뿐 國際法通念上 가장 重要한 聯邦成立을 위한 條件 即, 聯邦憲法, 聯邦政府, 聯邦과 支分 國間에 權限配分問題, 聯邦裁判所, 聯邦立法機關等에 關해서는 何等の 言及이 없는 것은 提案키 위한 提案으로서 疑心받을 만한 것이다.

三. 聯邦制主張의 分析과 評價

上述한대로 北韓提案의 聯邦制 統一主張은 많은 問題點을 갖고있는 同時 오늘날의 南北韓의 狀況으로 미루어 볼 때 現實性은 稀薄한 提案임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北韓의 이 主張의 真意를 우리는 分析·評價할 必要가 있다. 그것을 優先 對南革命戰略, 平和共存理論 및 統一戰線戰術 등 세가지 側面에서 檢討해 보고져 한다.

(1) 對南革命戰略

北韓이 提案한 南北聯邦制는 嚴格하게 分析한다면 韓半島에 두개의 主權國家가 存在하고 있다는 側面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統一國家를 指向하기 위한 措置라는 主張이라는데 그 特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南北聯邦制案이 統一指向的인 側面이 있다고 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民族共同의 念願에 기초한 統一國家의 實現을 追究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소위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으로서 提起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關係서는 1972年 11月 23日의 다음과 같은 平壤放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即, 南北聯邦制는

첫째, 統一의 基本障礙인 美軍을 온 겨레의 團合된 힘에 의하

여 撤収케 할 條件을 만들며 統一問題解決에 대한 美國의 干涉을 排除하도록 하는 現實的 放送이 必要하며,

둘째, 思想, 理念, 制度가 相廻된 南北의 現實은 多方面的인 交流에 있어 그 制限性이 不可避함으로 政治, 經濟, 文化, 軍事, 外交 面의 民族的 連繫를 보다 促進할 수 있는 方途 卽, 完全合作이 必要하며,

셋째, 以上の 諸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當분간 過渡的인 對策이 要求되며, 過渡的 措置(南北聯邦制)를 實施하는 過程에 外勢의 干涉없는 南北總選舉를 통한 統一政府를 樹立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할 수 있는데 그 提案 根柢를 두고 있다.

또 注目할 것은 金日成의 「高麗聯邦共和國」提案에는, 過去 同案 提案과는 달리 軍事的問題先決을 要求하며, 駐韓美軍의 撤収를 南北聯邦制 實現의 先行條件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事實이다. 卽, 過去 그들은 南北聯邦制의 實現으로 美軍撤収를 促求하자고 늘 主張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北韓의 態度變化는 南北間의 平和條約 締結의 提案에서도 같은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卽, 1971年1月 金日成은 日本 「読売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 「平和條約을 締結하고 駐韓美軍을 撤収케 한다」라고 하여 同條約 締結에 何等の 先行條件을 보이지

않았는데 1973年3月 南北調節委員會 第二次會議에서는 駐韓外國軍의 撤收를 平和條約의 하나로 包含시켜야 한다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以上에서 보는 一聯의 北韓側의 態度는 南北聯邦制와 對南革命戰略 과의 相関性을 立証하는 것으로 判斷된다.

(2) 平和共存理論

南北聯邦制의 한 側面, 即 南北에 각기 두개 國家의 認定 即 平和的關係의 維持라는 側面에서 볼 때 이 聯邦制는 平和共存理論 에서 評價도 될 수 있다.

그러나 注意할 것은 共產主義의 概念에 비추어 본 「平和共存」은 우리의 概念의 것과는 相異하다는 것이다. 即 共產世界에서 平和共存에 關한 理論은 1920年代의 「레닌」과 그리고 「스탈린」에서 發端을 찾아 볼 수 있으나 對外政策과 革命戰略의 理論으로 發展시킨 것은 1950年代 後半期 「후루시초프」 소련 首相이다. 그는 1956年 소련 共產黨 第20次 黨大會에서 「國際外交에 있어서 넷가지 原則的問題」라는 表題로 「平和共存」, 「戰爭防止의 可能性」 「社會主義로 가는 多様な 道」이라는 세가지 命題를 闡明하였다. 이것은 1964年 「후루시초프」가 失脚했음에도 오늘날까지 소련 共產黨의 對外政策路線 및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戰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컨대 平和共存理論은 體制를 달리하는 社會主義國家와 資本主義國家間的 共存은 좋은 싫든 客觀的 實在인 만큼 戰爭에 의한 世界革命의 可能性이 없는 條件에서 兩體制間에는 共同滅亡의 根源인 戰爭을 避하고 領土의 保存과 主權의 相互尊重, 不侵略, 內政不干涉, 平等 및 互惠, 平和共存의 原則에 따라 平和적으로 共存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나 兩體制間的 經濟 및 社會發展의 競爭에 의해서 共產主義<이네올로기>의 優越성을 證明함으로써 共產主義의 革命的 目的을 追究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北韓은 소련의 이와같은 平和共存의 理論에 대하여 一貫性 있는 態度를 갖지 못하였다. 卽 北韓은 때로는 肯定的態度를 보였는가 하면 (1957年12月5日 勞動黨 中央委員會 擴大全會會議에서의 金日成 演說) 때로는 「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國家와의 平和的共存政策은 社會主義國家 對外政策의 한 側面에 不過하다. 結局 그러한 政策에 의해서 反帝鬭爭을 溶解시킨다면 또는 그에 의해서 反帝鬭爭을 弱化시켜서는 안된다」라고 主張하였다. (1965年10月10日 金日成 演說)

이와같은 北韓의 一貫性 없는 平和共存理論에 대한 態度는 北韓 提案의 南北聯邦制案의 政策的 및 戰略的 意圖를 糾明하는데 커다

란 示唆을 주고 있다.

北韓은 平和共存政策을 外國과의 關係에서만 認定함으로서 南北聯邦制案은 理論上으로는 平和共存과 對立시키고 있다. 그러나 實際로는 <共產主義的 平和共存論>의 所産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兩者는 相通한 點을 갖고 있다.

그것을 분석하여 본다면 即,

첫째, 韓半島에 現實的으로 體制를 달리하는 두개의 國家가 存在하고 있다는 認識이 前提로 되고 있다는 點.

둘째, 南北間의 關係는 戰爭에 의한 併呑이 아니라 平和的이어야 한다는 點.

셋째, 經濟, 社會發展 競爭과 階級鬭爭을 排除하지 않고 窮極的 目標은 社會主義革命에 있다는 點等은 南北聯邦制가 共產主義的 平和共存理論이 矛盾이나 對立되는 概念이 아니라 오히려 共通性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判斷 評價되어야 한다.

(3) 統一戰線戰術

北韓의 聯邦制統一主張은 共產黨의 戰略의 하나인 統一戰線戰略과 聯關지위 考察할 必要가 있다.

韓出一般的으로 統一戰略이란 共產黨이 當面한 革命的課題에 利害를

관한

같이 하는 政黨, 社會團體 및 一切의 社會階層과 提携하여 行動統一을 期함으로써 相對方인 敵을 孤立 打倒하는 戰術을 말한다. 이에 關하여 좀 더 具體的인 事項을 든다면 그 構成要素는 主敵, 主力軍 豫備軍을 設定하고 統一戰線의 原則으로는 이에 參加하는 諸政黨 政派의 相對的獨立性을 設定해 주되 主導權은 역시 共産黨이 장악하며 參加大衆을 共産黨의 政治思想方向으로 改造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統一戰線의 役割과 原則에 關해서는 <레닌>이나 毛沢東에 의해서 크게 強調되었으며 歴史的으로 各國共産黨이 革命運動에 例外없이 通用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이 通用된 理由는 共産黨의 統一戰線이 窮極的으로 共産黨 獨裁政權을 實現하기 위한 前段階의 戰略戰術로 利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北韓은 위에서 말한 共産主義의 傳統的인 統一戰線原理를 韓國에 대한 革命戰略戰術로 그들 나름대로 試凶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그리고 그들은 統一戰線의 必要性을 다음과 같이 力說하고 있다.

即, 「革命的 勝利를 위해서는 革命的 主力案을 꾸미는 同時에 革命에 利害關係를 가지는 모든 力量을 動員해야 한다. 오늘날 南朝鮮에서 各界各層의 愛國的 民主力量을 방라하는 廣範한 反美救國

統一戰線을 形成하는 것은 革命力量을 強化하며 革命鬭爭을 發展시키기 위하여 가장 重要한 課業의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北韓의 이와같은 統一戰線戰略은 毛沢東이 開發한 統一戰線戰術 — 合作戰術 — 을 援用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毛沢東의 소위 聯邦政府論과 北韓의 南北聯邦制案이 다음과 같이 많은 類似點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中國共産黨이 聯合政府를 構成함에 있어 國共兩黨에 限한 것이 아니라 中國共産黨이 扶植해 놓은 「民主同盟」을 비롯해서 中立勢力等を 包含한 統一戰線形成을 提示했다는 것은 南北의 各階 各層人民 및 諸政黨, 社會團體等 代表로 「大民族會議」를 召集하여 이를 聯邦制 構成의 協議機構化하려는 北韓側의 統一戰線戰略과는 同一한 것이다.

둘째, 中國共産黨은 國民黨이 聯合政府를 拒絶할 때 이것을 拳國抗日 要求에 대한 拒否라고 逆宣傳함으로서 政治的·軍事的 攻勢의 口實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韓國政府가 聯邦制를 反對할 때 이를 祖國統一의 民族的念願에 대한 背反으로 宣傳하고 이른바 統一 不願, 外勢依存의 南韓政府 打倒運動을 加熱化시키려는 것도 恰似한 것이다.

셋째, 中國共産黨이 聯合政府論을 내세워 對內的으로는 自黨에 대

한 支持 勢力을 確保하는 同時 對外的으로는 美國의 關心을 誘導 하며 따라서 相對的으로 國民黨을 孤立化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北韓이 聯邦制 統一主張을 함으로서 韓國民의 感傷的 統一論을 誘導하고 또한 國際輿論의 呼所力을 가져 韓國政府로 하여금 그들 主張에 同調토록 하고 있는 點도 비슷하다.

以上에서 北韓의 聯邦制主張에 대하여 國際法의 傳統的概念 對南 革命戰略, 平和共存理論 및 統一戰線戰略 等 몇가지 側面에서 分析 檢討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同聯邦制案이 政治學의 通念에서 말하는 國家聯合 또는 聯邦을 成就하는 國家가 지니는 最小限의 理念的 基礎에 關한 同意가 前提되어 있지 않으므로 쉽사리 窺見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同提案은 分明히 共產主義的 平和共存理論과 統一 戰線戰略을 根幹으로 하는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으로 評價될 수 밖에 없다.

四 . 結 論 (待 備 策)

北韓이 지난 10餘年間に 걸쳐 행한 南北聯邦制 提案은 結局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으로 分析·評價하여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하여 간결적으로 再提案될 可能性이 있는데 그 理由로 現在의 國內外情勢로 미루어 比較的 呼訴力을 發揮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의 聯邦制 提案을 分析·評價함에 있어 上記한 대로 그들의 統一戰略의 一環으로 看做한다고 하자 그러나, 70年代以後의 多様性을 더운 北韓戰略으로 미루어 그 提案의 發展이 지금의 程度以上の 것이 못된다는 斷斷은 禁物일 것이다.

이와 같은 基本的 考慮에서 「聯邦制」에 關한 몇가지 建議를 試圖해 본다.

첫째, 北韓의 聯邦制 主張에 대한 對內的인 批判的 啓蒙이 時急하다. 一般 國民들은 單純하고도 감상적인 統一論에 사로잡혀 同 調할 可能性도 없지는 않다. 더구나 聯邦制가 南韓關係와 같이 이데올로기의 對決이 繼續되는 地域에서 實現된 例가 없기 때문에 知識人을 包含한 全體國民을 위해 이 提案에 대한 啓蒙이 꼭 必要하다.

둘째, 이 聯邦制에 對한 徹底한 研究가 必要하다. 最近 南北對話를 契機로 從來보다 훨씬 많은 提案들이 北韓에 의해서 행해지

고 있는데 이에 대한 批判이나 啓蒙이 國民에게 올바르게 理解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北韓側의 諸提案에 대한 徹底的 理論的 批判이 體系化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政府發刊의 諸般 冊子들이 좀더 權威있는 批判內容이 담기도록 斯界의 權威學者들의 動員이 要求된다.

세째, 北韓資料 利用의 門을 넓힐 必要가 있으며 이를 위한 政策的 考慮가 必要하다. 더구나 知識人 특히 教授, 言論人等에 대하여 必要한 資料를 公開함으로써 断片的으로 羅列되는 美辭麗句 即, 「聯邦制」 「平和協定」 「軍備縮小」 「平和共存」 등으로 因하여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必要하다면 그들의 「聲明」 또는 文件들의 全文을 紹介함으로써 올바른 判斷을 갖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네째, 對外的으로 說得力있는 弘報를 強化해야 한다. 權威있는 外國人의 斯界學者의 協力을 얻은 聯邦制 主張에 대한 理論的이고 體系的인 批判은 극히 効果的인 것이다. 一般 外國人들은 韓半島의 特殊環境에 대한 理解가 크게 없어 北韓의 聯邦制 提案에 대한 一方的 支持 또는 同調可能性이 앞으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비단 聯邦制 提案만이 아니라 統一問題, 安保問題에 대한

主體的 判斷을 위한 세미나 또는 其他 研究會를 위한 政策的 考慮가 必要하다. 특히 教授, 學生間의 共同研究, 그리고 其他 많은 中間集團의 構成員들의 共同研究 및 올바른 認識은 長期的인 眼目에서 매우 重要한 일이다.

여섯째, 이 問題는 매우 重要한 것인 바 앞으로 혹시 있을 北韓의 「聯邦制案」 또는 그와 비슷한 提案이 現實的 課題로 등장했을 때를 대비한 理論的·政策的 考慮도 아울러 緊要하다.

4. 討 議 内 容

司会 李 昶 雨 教授 (嶺南大学校)

< 司 會 >

最近 一聯의 學園事態로 인하여 매우 奔忙한 가운데도 同學 教授 여러분과 政府에서 오신 두분이 함께 모여 이 세미나에 參加하여 주신데 대하여 主催者로서 또한 司會者로서 감사드립니다.

本人이 午前에 發題한 內容은 實地에 있어서 오랜 時間에 걸쳐 詳細히 說明해야 옳은 일입니다만 時間을 節約하는 意味에서 간단하게 問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時間에는 보다 幅 넓게 여러분께서 自由롭게 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午前에도 말씀드렸음니다만 時間과 資料의 制約으로 인하여 發題가 不充分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本人이 強調하고 싶었던 것은 北韓의 聯邦制統一主張이 概念上 모호하고 그 實踐이 現實적으로 보아 不可能한 것으로 判斷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提案은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으로 分析·評價하였습니다. 그러나 注意할 것은 同提案의 國內外的 呼訴力은 完全히 排除할 수 없을 것이라는 點도 考慮하고 있습니다. 이 問題에 關해서는 「發題論文」 末尾에 建議를 겸해 意見을 提出했습니다.

이 時間, 全聯邦制에 關한 國際法 概念上的 分析·評價를 金, 鄭先生 두분 國際法學 先生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對南革命戰略, 平和共存理論 및 統一戰線戰術面에서의 考察을 여러분

들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司會者는 다만 架橋的인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 金文達 >

1. 國際法의 通念에서 볼 때 聯邦이란 複數國家가 合意(條約)하여 中央政府(聯邦政府)下에 平等한 關係로서 機構的으로 結合하는 國家形態를 말하는데 聯邦政府가 支邦國의 全領域에 대하여 最高地位에 있으며 對外的으로도 主權을 行使하는 統一的인 國際法上의 人格體입니다.

聯邦을 구성하는 支邦國도 政治的으로 重要하지 않는 事項에 관하여 條約을 체결한다든가 또는 外交使節을 交換한다든가 하는 것이 인정된 적도 있었다. (例컨대 1867~1919年의 독일聯邦) 이런 경우에는 매우 制限된 權限만 가져있었지만 支邦國도 制限된 國際法上의 人格體로 간주되었다. 勿論 이 경우에도 宣戰 및 講和나 또는 同盟 기타 政治的으로 重要的 條約締結權은 聯邦自體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大部分의 聯邦은 聯邦政府만이 對外的으로 國家로서 代表되며 支邦은 전혀 外交關係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支邦은 國際法的 意味에 있어서는 國家라고

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聯邦은 嚴格한 의미에서 國家結合이 아니며 單一國家이며 다만 對內的으로 매우 高度의 自治가 인정되고 있는데 不過하다.

北韓이 主張하는 南北聯邦制는 「高麗聯邦共和國」으로서 유엔에 單一國家로서 加入하자는데 있어서는 國際法上的 國家類型으로서 聯邦制인 것 같으나 實質에 있어서는 南北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独自の 活動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即 南北에 각각 두개의 主權國家의 존재를 인정하는 點에서는 實質적으로 國家聯合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國家結合은 複數國家가 條約에 기하여 結合하고 共通機關에 의하여 外交 기타에 관한 一定事項을 處理케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聯合自體는 國家가 아니며 構成國이 國家로서의 國際法人格을 가지며 對內的으로 그리고 對外的으로 獨立性을 가진다. 이러한 國家가 第三國과 各各 別個의 資格으로서 條約을 체결하고 外交使節을 交換하는 資格이 인정된다. 다만 構成國의 合意에 의한 聯合의 權限에 委任된 事項에 관해서는 聯合기관이 처리하게 되는데 이 기관은 各構成國의 代表로서 구성되는 合議體이며 이 合議體기관은 그 決議의 効力は 오직 構成國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지 구성國의 住民에 대해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보통 第三國에 대한 宣戰·

講和등이 이러한 共通기관에 委任된다.

北韓의 聯邦制主張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實質에 있어서는 國家聯合의 類型에 비슷하나 單一國家로서 유엔에 加入한다는 點에서 傳統的인 國家聯合과도 상이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北韓의 聯邦制主張은 國際法上的 典型的인 國家結合의 어떤 類型에도 부합되지 않는 特異한 형태인 것이다.

2. 元來 聯邦制는 밀접한 관계와 友好關係를 가지는 國家들이 처음에는 國家聯合形態로서 結合하여 共通利益事項 즉 對外關係를 效率的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 그 目的이었는데 그 結合의 긴밀度가 비박하여 分離하고 말았고 긴밀度가 加重되어 결국은 聯邦形態로 바뀌어져 간 것이다.

南北間에는 아직 相互理解가 不充分하고 너무나 異質的인 政治體制를 갖고 있는 狀況下에서 聯邦制를 指向한다는 것은 時機尙早인 것으로 생각된다. 相當한 기간 相互理解增進을 위한 여러가지의 中間措置를 거치고 나서는 앞으로는 어떤 名稱을 불이든간에 南北間의 結合努力이 研究되고 終局的으로는 統一의 길로 指向하여야 할 것이다.

< 鄭 雲 章 >

방금 金教授께서 聯邦과 國家聯合의 概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兪題하신 李教授도 指摘하신 것처럼 北韓의 聯邦制主張은 그 概念上으로 極히 糊糊하고 애매합니다. 名稱上으로는 聯邦이라고 하나 國際法上으로 볼 때 이것은 聯邦이 아닙니다. 內容的으로는 國家聯合의 範疇에 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國聯 加入의 경우 國家聯合을 構成하는 南北韓이 同時加入(또는 個別的 加入)해야 할텐데 南北韓의 單一加入이란 國家聯合의 概念上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北韓의 소위 聯邦制主張과 國聯에의 單一加入主張은 自家撞着이고 矛盾이라고 하겠습니다.

< 司 會 >

國際法을 專攻하시는 두분의 分析·評價는 다 같이 北韓側의 聯邦制主張은 概念이 모호한 것으로 結論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政府側의 見解에 대하여 李榮一, 米榮大 두 先生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李 榮 一 >

北韓의 聯邦制에 대하여 外國사람이 쓴 글에 보면 「Confederation」으로 表現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金日成은 이미 李教授의 論文에서 서로 指摘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聯邦制가 「스위스」식이나 「汎아랍共和國」식도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特殊한 pattern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變化된 British Commonwealth라 할까요. 卽 英聯邦의 各國은 유엔에 各 己 加入하고 또 한편으로는 協力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強調했음니다만 北韓의 聯邦制는 特殊한 pattern이며 그것은 오히려 1925年の commintern의 聯合戰線의 傳承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그것은 commintern戰術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點에 비추어 볼 때 이 聯邦制 統一主張은 바로 發題者의 意見과 같이 北韓의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 聯邦制를 오랫동안 研究하여 온 宋先生의 意見이 必要할 것입니다.

< 宋 榮 大 >

聯邦制에 대한 研究의 結果 北韓主張의 聯邦制는 國際法의 通念

에서도 Federation 보다는 Confederation 에 가까운 것으로 判
斷됩니다. 發題에서도 引用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關한 평양放送은
理論적으로 矛盾을 안고 있습니다. 卽 對內的으로 두개의 國家存
在를 認定하면서 (Confederation) 對外的으로는 單一國家를 主張하
고 있습니다. (Federation)

이렇게 分析할 때 1960年代에 이르러 提案된 北韓側의 聯邦制
統一主張은 1956年 東獨이 西獨에 대하여 提案한 것과 비슷합니
다. 卽 東西獨間의 國際的 條約을 맺고 「全獨委員會」를 設定하
자는 것인데 北韓側의 聯邦제도 그 發想의 動機는 바로 東獨의
提案에서 온 것으로 判斷됩니다.

좀 더 이에 關하여 分析한다면 北韓은 聯邦制 提案에서 國号
實施 및 그 成果에 關하여 抽象적으로 言及했을 뿐 聯邦制 實施
를 위한 具體的인 要件이나 條件은 提示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對南戰略의 現實的 要請에 의해 宣傳에 이 聯邦制를 利用하
고 있습니다.

이 聯邦制를 歷史적으로 考察해 본다면 構成國家間에 첫째 緊張
이 없어야 하며, 둘째로 理念의 同質性이 最小限度 存在해야 합니
다. 이와같은 두가지 條件이 充足되어야 하는데 北韓의 主張을
分析할 때 이러한 前提는 無視하고 提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北韓의 同提案은 여러분이 指摘하신대로 北韓의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具體적으로 平和共存理論과 統一戰線戰術이라는 側面에서 詳細히 說明할 수 있습니다.

< 司 會 >

李總長께서 이 問題에 關하여 意見을 玆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壇 根 >

本人이 知道대로 國際法의 해석을 共產主義陣營과 自由主義陣營의 學者間에 差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點을 留意해야 될 點입니다.

歴史的으로 볼 때 煥洪帝國은 二次大戰의 原因이 되었습니다. 卽 「洪」의 「煥」에 대한 反撥이 結局 戰爭原因이 된 것을 우리는 參考해야 할 것입니다.

最近 日本의 某週刊紙에 報道된 것을 보면 中共의 對日政策이 日本赤化라는 궁극적 目標을 두고 聯合戰線 → 人民民主主義政府 - 日本赤化라는 公式의 政策을 警戒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本人이 알고 싶은 것은 이와같은 共產主義戰術로 미루어 中共의

対日赤化政策과 같은 것이 美國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宋 榮 大 >

李 鎭 根 總 長 님 말씀에 다음과 같이 補充할 수 있습니다. 即 北韓의 조선 말 사전에서 그들은 複合國家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即 「二個以上の 獨立國家들이 聯合하여 하나의 主權國家를 이루고 있는 나라」 또는 「어떤 一定한 目的을 가지고 하나의 機關을 통하여 이루어진 國家들의 聯合」이라고 西方側과 비슷한 概念으로 說明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이미 指摘한대로 北韓의 聯邦制는 統一戰線戰術로서 適用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事例는 二次大戰後에 나타난 <人民戰線戰術>에서 알 수 있습니다. 具體的으로는 프랑스의 反나치 人民戰線은 그 좋은 例가 됩니다. 그리고 毛沢東의 「合作戰術」도 꼭 같은 것이며 그리고 大戰後의 東歐의 <聯立政府戰線>도 같은 事例가 되겠습니다. 또한 北韓의 解放以後의 <統一戰線>도 同一한 性格입니다.

특히 東獨이 試圖한 國家聯合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北韓의 提案內容과 비슷합니다.

東獨의 國家聯合案에서는 「全獨委員會」를 提案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兩獨의 議會代表들로서 기능은 東西獨間의 産業, 貨幣 等 주로 交流를 專擔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注目할 것은 이 全獨委에 調節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提案하고 있는 점입니다.

< 金文達 >

過去 東獨이 提議한 「全獨委員會」는 東西獨國民에 대하여 拘束力이 있었는지 米先生의 說明을 부탁드립니다.

< 米榮大 >

이에 關한 明文上의 規定은 없습니다. 다만 勸告事項이 있을 뿐입니다.

< 崔在元 >

李榮一先生과 米榮大先生 두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金日成이 提案했다는 所謂 南北聯邦制案은 따지고 보면 東獨의 社會主義統一黨 第一書記 「울브리히트」가 1956年 12月 東·西獨의 統一方案으로 「國家聯合案」을 主張하여 統一의 첫段階로 國家聯合이라는

形態로 統一하여 東獨과 西獨이 함께 國際法上的 主體가 되자는 것으로 그 內容인즉 東·西獨 兩便의 議會代表者로 全獨理事會를 構成하고 그 理事會로 하여금 全獨逸의 國防·外交政策에 對해 調整的機能을 擔當하자고 하는 東獨의 所謂 國家聯合案을 模倣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Federation의 性格보다 Confederation의 性格이 濃厚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東獨이 내놓았던 統一方案으로서의 國家聯合案을 西獨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東獨을 國際法上的 主體로 認定하게 되는 結果가 됨으로 西獨이 反對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 東獨도 이의 主張을 拋棄하고 1968年 採択된 新憲法에서 東·西獨關係를 外國關係로 規定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뒤늦게 왜 北韓의 金日成이 踏襲 提案하게 되었습니까?

또한 6.23 宣言에 對한 反對로 同日밤 8時 金日成은 南北韓의 UN同時加入案을 拒否하고 聯邦案을 들고 나와 單一國號 아래서의 UN加入을 主張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가 1949年 1月과 1951年 12月 두번에 걸쳐 UN加入을 申請했을 때 北韓側도 1949年 2月과 1952年 1月 두번 UN加入을 申請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北韓과의 UN同時加入을 反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23 宣言으로 우리가 南北의 UN同時加入을 提議하니 이번

에는 北韓이 180度 態度를 바꾸어 이를 拒絶하고 聯邦制案을 들고 나와 單一國號 아래의 UN加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問題는 앞으로 언젠가 받아들일 可能性을 전혀 排除할 수만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問題에 對해서 宋先生님께서 좀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榮 大 >

現在의 判斷으로서는 北韓의 聯邦制 提案은 金日成의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으로 밖에 辨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崔 在 元 >

李昶雨教授의 發題에서도 指摘된 바와 같이 朴大統領은 6月23日 緊張緩和와 國際協助에 도움이 된다면 UN多數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의 障礙가 되지 않는다면 하는 前提下에 南北韓의 UN同時加入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平和統一外交政策을 闡明하자 金日成은 聯邦制統一案을 提議했는데 이때 우리政府가 北에 對한 보다더 積極的인 하나의 對備策으로서 金日成의 所謂 聯邦制統一案을 即時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곧 北韓 金日成

의 聯邦制統一案의 虛構性을 對內外的으로 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은 間或 image crisis 라는 말을 使用하는데 金日成이 提案한 聯邦制案의 性格, 主張의 底意, 非現實性等에 對해 잘 모르고 있는 一般國民大衆들은 잘못 判斷하여 聯邦制案은 곧 統一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南北韓 UN 同時加入案은 祖國 分斷의 永久化라는 印象을 줄 念慮는 없겠습니까? 또 對外的으로도 異常한 方向으로 먹혀들어 image crisis 를 가져올 念慮는 없습니까?

우리가 恒常 神經을 쓰고 銘心해야 할 일은 國家聯合이 무엇이며 또 聯邦制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聯邦制가 이룩되자면 어떠한 要件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點 등을 認識하고 있는 知識層이 問題가 아니고 그러한 것을 잘 理解하지 못하는 底辺層에 가로 놓여 있는 一般國民大衆이 感傷的 或은 直感的으로 받아들이는데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다 더 積極的인 姿勢로 金日成의 所謂 聯邦制案이 나왔을 때 即時 우리政府가 받아들여 이 聯邦制案을 놓고 南北이 함께 論하게 되면 곧 金日成의 聯邦制案의 底意, 虛構性이 暴露되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宋 榮 大 >

政府에서 積極的인 態度가 아닌 消極的인 態度에는 理由가 있습니다. 그것은 北韓의 이 提案의 真意가 어디까지나 宣傳에만 置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司 會 >

지금까지 매우 活潑한 討論이 進展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司會에 拘碍됨이 없이 各自의 意見을 充分히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聯邦制提案에 대하여 建議할 事項도 아울러 提起해 주시기 바랍니다. 發題때에도 여섯가지 提案을 했읍니다만 더 많은 補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聯邦制案이 對外的으로 미치는 政治心理的 側面에서의 餘波도 결코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點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 在 元 >

北韓側이 提案한 聯邦制統一案이란 結局 안으로는 우리의 反共體制, 反共意識의 解弛를 피하고 밖으로는 하나의 韓國案主張의 印象

을 풍겨 海外僑胞에 對한 侵透工作等에 利用하려는 底意가 숨어 있다고 보는데 이에 對해 우리政府로서의 具體的인 對策의 確立이 緊要하리라 믿습니다.

< 鄒雲章 >

여러 先生님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운 것이 많습니다. 방금 李先生(李榮一)께서 commonwealth에 관하여 잠깐 言及 하셨는데 北韓의 聯邦制主張은 勿論 英國의 commonwealth와 같은 特殊한 國家結合의 形態에도 들지 않습니다. 對內的으로는 兩體制을 그대로 두고 國聯에는 單一體로 加入하려는 北韓의 主張을 굳이 國際法上的 國家結合의 類型에서 찾는다면 物上聯合(物的同君聯合, real union)과 비슷한 것이 됩니다. 마는, 物上聯合은 君主主義 國家에서만 볼 수 있던 過去의 遺物的的制度이므로 結局 그들의 主張은 國際法上으로는 그 類型을 찾을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現行國際法上 國家結合의 어느 概念에도 해당되지 않는 矛盾된 主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嚴密히 말하여 國際法上 國家結合에는 一定한 法的形態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聯邦도 아니요 國家聯合도 아닌 새로운 形態의 結合體를 國際法上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聯邦이든 國家聯合이든 또는 이

와 다른 型의 特殊한 結合體이든 그 어떤 結合體를 形成하려면 相互間에 緊張이 解消되고 또 相互信賴的인 基盤부터 造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先決的 基盤의 造成을 回避하거나 오히려 이에 대한 逆行的 行動을 取하면서 國際法上 그 先例가 없는 새로운 形態의 結合體를 만들려는 것은 政治的으로도 그 底意가 變할 뿐만 아니라 國際法的으로 보더라도 混亂만 惹起하고 또 法的 不安定性을 自招하는 것으로서 極히 危險하고 不當한 主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附言코져 하는 것은 제 自身 國際法을 專攻한 사람입니다마는 이러한 高度의 政治的 問題 (political question)가 國際法理論에 依하여만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國際法 以前의 側面에서 그들의 主張에 對処할 對備策의 樹立이 緊要하다고 생각합니다.

<司 會>

방금 鄭教授께서 聯邦制 - 國家聯合 - 形成의 그 結合의 形態는 얼마든지 새로운 모델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重要한 討論의 焦點이 될 수 있습니다.

< 李 瑄 根 >

勿論 鄭教授의 말씀과 같이 國際法上 새로운 結合體를 갖는데 대한 禁止條項은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慣習法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影響을 주는 것인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鄭 雲 章 >

總長님의 國際法上 새로운 結合體를 만드는 것이 禁止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國際法에는 慣習法의 比重이 크니깐 그런 면에서 그들의 主張이 不當하다고 볼 수 없겠는가라는 質問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內容的으로 國家聯合과 같은 結合體를 主張하면서 國聯의 單一加入을 主張하는 것이 國際法上 矛盾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하여 國際慣習法을 適用하거나 拳論하기는 國際法上 좀 無理인 것 같습니다.

< 朴 相 雨 >

共產主義者가 敵과의 關係에 있어서 恆時 戰略戰術을 使用하고 있는 것은 常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北韓의 聯邦制가 南韓의 赤化統一戰略이라는 것도 充分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 問題에 關해서 國際法上으로 많은 論議가 있기는 하나 國家聯合이란 것도 이미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高麗聯邦共和國」이라는 北韓側의 聯邦制案이 非現實的이라는 것도 모두 認定합니다.

따라서 本人이 強調하고 싶은 것은 聯邦制의 虛構性에 비추어 오늘의 南北對話의 核心인 調節委員會를 보다 強化, 有效하게 利用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 李 瑄 根 >

要是 우리의 統一問題를 위해서는 新羅의 三國統一의 歷史的 教訓을 되 살릴 必要가 있습니다.

특히 統一에 있어서 重要한 것은 힘을 바탕으로 한 外交입니다. 新羅와 같이 當時 對內, 對外 兩面에 걸쳐 均衡이 잡힌 힘의 土臺에서 統一의 偉業을 完成한 것을 거울 삼아 오늘의 統一課業도 對內외의 均衡된 힘을 背景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그것은 새로운 哲學도 아울러 要請됩니다.

< 宋 榮 大 >

朴, 鄭 兩教授의 意見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北韓提案의 聯邦制에 関한 対策은 이미 對備策도 考慮하고 있습니다. 前에 말씀하신 調節委를 갖고 對處하는 方案等도 勿論 考慮되는 것입니다.

北韓은 聯邦制를 主張함에 있어 「最高民族會議」를 主張하다가 最近에는 「民族會議」를 主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最高民族會議」는 調節委와 어느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단 前者가 政府代表者間의 會議인데 反하여 後者は 非政府代表로 構成하고 있다는 點은 相異한 點입니다.

< 司 會 >

政府에서 聯邦制에 關하여 研究하신 宋先生님께 質問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參加하신 分은 이 時間 모두 發言하시고 自己 意見을 開陳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 雲 章 >

北韓이 새로운 形態의 結合體를 主張한 底意라던가, 그들의 戰略에 대하여는 朴先生님 말씀에 全的으로 同感이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國際法上 새로운 形態의 結合體를 만드는 것이 禁止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底意를 잘 모르는 外國人들 (특히 外國學者들) 間에는 北韓의 主張은 不當하다고 보지 않을 사람들이 있게될지 모르므로, 國際社會에서 그들 主張의 不當性을 指摘할 때에는 國際法的 側面에서 지나치게 強調하는 것 보다는 그들이 結合體 形成의 前提條件이 될 基盤의 造成을 위하여 果然 얼마나 誠意를 보이고 있느냐, 또는 그들이 오히려 逆行的인 緊張 造成行爲를 行하고 있다는 點에서 二律背反을 犯하고 있음을 具體的으로 指摘하는 것이 더욱 效果的인 것이 아니겠는가고 생각합니다.

<朴 泰 岩 >

南北의 統一問題는 名分論과 實質論의 兩面을 同時에 배려해야 합니다. 名分論을 Sollen的인 것이라 한다면 實質論은 Sein的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當爲的인 立場에서 韓國統一을 본다면 北韓側의 聯邦制 提案이나

其他 여러나라의 提案을 手段아닌 目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의 屬性으로 보아 北韓의 聯邦制는 李榮一선생을 위시한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目的이 赤化統一을 노리는 統一戰線戰略 내지 國際社會에서의 宣傳的 名分論이 더 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民族至上 課業인 統一을 名分에서만 찾을 수 없습니다. 冷蔽한 現實, 異質的 國家·社會體制, 南北對話에서 얻은 體驗과 敎訓 등을 바탕으로 現實的 實質論을 重視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立場에서 北韓의 聯邦制提案은 國際共產主義의 進展過程과 관련시켜 해석하고 分析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特히 저는 이를 中共의 國·共合作의 結果에서 얻은 敎訓을 되살려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1923年 第1次 國·共合作이 Comintern의 파견과 Adolf Joffe에 依해서 成立되었을 때나, 1937年 第2次 國·共合作이 周恩來의 주선에 依해서 成立될 때도 다 같이 表面上으로 共產主義者들이 國民黨에게 되양보하는 形式으로 成立되었었다. 그러나 그것은 蔣介石 國民政府가 스스로 죽음의 무덤을 판 結果가 되었고 毛沢東의 二段階革命을 뒷받침해 준 結果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여기서 強調하고 싶은 것은 毛沢東의

그 組織的 體制에 對항할 수 있는 蔣介石의 團合的 體制가 없었
다는 點이다. 다시 말하면 蔣介石 國民政府는 지나치게 自由放任
的이어서 社會的 國家的 虛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10月維新的 措置는 適期的인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모든 國民은 理解하고 스스로
이 緣列에 參與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北韓側이 제안하는 聯邦制案이 1960年의 그것과 今年
6月23日에 한 內容이 너무나 差異가 있으며 또 宣傳性이나 우
리가 受容할 수 없는 것들을 主張한다해도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名分을 감안한다면 反對一辺倒主義만 挾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提示는 못하겠읍니다만 뭔가 代案을 별 必要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다시금 韓國에 대한 「image crisis」
를 招致시킬 위험마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 28차 UN총회의 경우를 본 바와 같이 韓國問題는 점차
脫UN化되어 民族 自體의 對話와 努力에 一任되는 方向으로 되니
이제부터는 더욱 外交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앞날
을 생각하면 우리는 國土統一에 대한 機先을 北韓에 빼앗기지 않
아야 되며, 또 外國들이 보아서 韓國側에서 얻어 놓고 北韓提案을
不信한다는 印象도 주지 않도록 努力해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

의 對外弘報를 強化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對北韓 接近方案의 수립과 그 実行態度도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李 暎 雨 >

여러분의 北韓聯邦制에 대한 여러 見解에 대해서 저도 共感이 됩니다. 北韓이 1960年 8月 15日記念式에서 정한 演說을 비롯해서 最近까지 聯邦制문제를 들고 나올때 마다 그 무언가 저의 머리에 스쳐가는 하나의 歷史的教訓이 생각납니다.

1917년에 소련에서 “볼셰비키” 革命이 成功하고 또 世界赤化의 “스르겐”을 내 걸고난 후 現在까지 가장 큰 수확을 거둔 것은 내가 생각하기를 第2次大戰後 東歐諸國을 赤化해서 그들의 衛星國化시키는데 成功하였다는 것과 또 東洋에 있어서 광막한 中國을 共產國化시키는데 成功했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들은 東歐諸國을 그들의 衛星國化시키는데 있어서 방금 國土統一院에서 나오신 송선생님 말씀과 같이 聯立政府 (Coalition Government) 過程을 지나 몇개의 段階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소련은 戰後의 東歐諸國을 赤化시키는데 있어서 첫段階로 여러 自由主義的政黨과 民族陣營의 共產黨, 소련式 共產黨, 其他의 諸政黨으로 成立된

소위 合作된 Coalition Government의 構成을 이루고난 후 둘째
段階에 있어서는 Coalition Government에서 徐徐히 自由主義的
諸政黨을 去勢하는 戰術을 취해서 이의 成功을 보았습니다. 세계
段階로서는 共產主義政黨 가운데서 民族陣營의 共產黨을 숙청해서
그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소製共產黨의 執權을 可能하게 해
서 東歐諸國의 광막한 地域을 衛星國化하는데 成功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中共의 執權에 대해서 볼 때 1920年 初期에 中共黨 創
立以來 소위 反帝國主義, 反封建主義, 反軍國主義에 의한 第1次 國·
共合作과 抗日民族統一戰線이란 스로건으로 第2次 國·共合作, 아마
이 時期는 朱先生님이 提示한 凶表에 의한다면 平和共存時期와 人
民統一戰線時期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時期를 통해서 中共
黨이 力을 양성해서 또 毛沢東의 新民主主義理論 또는 聯合政府
論의 理論으로 무장해서 戰後에 政治協商會議를 決裂시켜 武力에
의해서 1949年에 執權함에 成功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過程에
있어서 第3次 “인터내쇼날”인 “코민테른”의 役割이 至大하였다
고 봅니다.

東歐에 있어서나, 中國에 있어서나 共產主義者들이 世界를 赤化시
키겠다는 戰術·戰略面에 있어서는 時空上 또는 內容上에 있어서
多少의 差異는 있었겠으나 대체적으로 表現上의 差異가 있지만 聯

邦制와 비슷한 段階를 반드시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事實은 오늘의 時点 즉, 北韓의 金日成이가 高麗聯邦共和國을 들고 나오고 있는 이 時点에 있어서 볼 때 過去의 歷史를 통해서 본 하나의 歷史的 教訓을 想起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北韓의 總案에 대해서 볼 때 이것은 그들이 赤化統一을 하겠다는 野慾을 음폐한 하나의 過渡期的인 存在로 聯邦割에 의한 統一案이라는게 귀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司 會 >

共產主義者들의 提案이 있을때마다 우리는 지난 날의 비슷한 提案의 背景과 性格, 그리고 그 結果에 對한 重視가 必要하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意味에서 李先生의 말씀은 꼭 有益한 것으로 믿습니다.

< 李 映 雨 >

統一院에서 나오신 李先生님에게 한가지 문의 하겠습니다. 以北의 聯邦制에 對한 外國 특히 美國의 反應을 묻고 싶은데 過去 中國 大陸이 共產化될때 美國의 對中國外交政策이 完全히 失敗했는 것으로

로 알고 있습니다. 戰後 中國에 있어서 國·共間의 政治協商會議를 美國이 強要해서 決局엔 失敗했는데 최근 월남에 있어서는 共產主義者와의 政治協商會議가 進行되어 있고 더우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美國政府指導者들이 보고 있는 以北의 聯邦制에 대해서 그리고 自由陣營의 反應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李榮一>

얼마전 美國에서는 지난 날의 「中國喪失」에 대한 責任論이 強하게 抬頭하였습니다. 그리고 東南亞 諸國에 있어서의 政治協商——聯立政府가 바로 赤化危險을 意味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唯一한 例外인 「라오스」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의 경우도 그것은 警戒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先生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弘報活動을 強化해야 한다는대는 전혀 異論이 없습니다.

<崔在元>

政府의 立場에서 李榮一先生님과 宋榮大先生님께서 여러가지로 說

明해 주어 고맙습니다. 또 充分히 理解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朴相雨教授, 朴泰岩教授, 李映雨教授 모두의 말씀이 한마디로 表現하면 政府의 積極的인 対応策이 아쉬웠다는 것으로 要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日成이 聯邦制를 主張하게 된다는 對内外 宣傳의 重要手段으로 使用하면서 待히 北韓의 統一戰線戰略으로 聯邦制를 論議하자면 必然的으로 그의 前提條件으로서 休戰協定の 無効化 問題가 提起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休戰協定締結当事者가 彭德懷, 金日成, 크라크였으니 休戰協定을 廢棄하고 代身 南北間의 平和協定을 締結할 境遇, 休戰協定 廢棄에 따른 UN軍解体 即, 駐韓美軍撤収 問題가 提起될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는 너무나도 消極的인 方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李總長님께서 去般 Paris에서 開催된 韓國學 學術大會때 北쪽 學者들의 思考가 굳어져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하신 말씀, 저는 참으로 感銘깊게 들었습니다. 바로 이 點인 줄 압니다. 共產主義理論은 劃一性인데 反해 우리는 多樣性이라는데 自信을 갖고 理論的으로 臨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저들이 우리의 韓美共同防衛 및 協力關係의 弱화 乃至 斷切을 가져올 駐韓美軍撤収 問題를 提起하면 우리 側에서도 聯邦憲法을 制定하는 作業過程에 主權概念, 自由概念, 平

等概念 등을 들고 나가 다른 점을 認識시키면서 예를 들면 自由
概念에 있어 자! 北韓 너희들도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를,
특히 自由로운 結社의 自由를 保障하라고 要求하며, 또 設使 聯邦
憲法이 制定된다 하더라도 그의 解釋에 異議가 있는 경우, 最終的
解釋權者를 누구로 할 것이냐? 司法部로 할 것이냐? 最高會議로
할 것이냐? 司法部 또는 最高會議의 性格·構成을 어떻게 할 것
이냐? 또 支分國위의 聯邦은 強制權을 가져야 하는데 南北의 全
혀 다른 體制를 그대로 두고 強制權을 가진 聯邦政府가 形成될 수
있느냐? 하는 問題 등이 露出되게 될 때 結局 一般 國民들도 聯
邦制를 하자면 理念의 同質性, 緊張의 排除, 相互間에 있어서의 協
助的인 窮困氣의 造成, 相互間的 國力の 均衡 등이 先行되어야 한
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元來 聯邦國이란 支分國이
다같이 美國 등과 같이 民主共和體制이거나 아니면 蘇聯 등과 같
이 Soviet 體制로 構成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現實적으로 聯
邦制란 不可能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自然히 우리 政府가 主
張하는 南北의 다른 體制에 있어서는 爲先 平和共存을 摸索해야
된다는 것을 對內外的으로 認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政府의
보다 더 積極的인 姿勢, 說得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 朴 泰 岩 >

統一國家를 指向하는 方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國家聯合的 聯邦이나 방금 朴교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은 南北調節委員會의 強化, 또는 어떤 具體的 交流形態(특히 經濟적)를 取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形態이던 우리는 北韓民族과 積極的으로 接觸하는 方法을 取해야 하며 歷史의 方向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면 우리 스스로가 그에 대비한 姿勢를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신발을 단단히 신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立場에서 앞에 李昶雨교수가 제기한 北韓의 提案을 더욱 研究하고 이들이 大衆化 될 수 있고 또 教育할 수 있는 方向으로 되어야 겠습니다.

平素 저는 우리 國民의 團합을 促求하는 方法으로서 全國民에 對한 社會教育의 實施와 社會開發의 積極推進을 現實化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社會教育은 自由民主主義가 좋다는 市民教育을 強化해야 한다는 것이고, 社會開發이란 福祉社會의 實現을 意味합니다. 社會教育의 內容에서 北韓의 實情이나 統一方案등을 周知시켜 건전한 北韓觀을 수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福祉社會의 實現이란 우리 自由民主主義의 脆弱點을 扞拭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面에서 「새마을 운동」은 그 方向이 더욱 研
究되어야 하며 政府當局에서도 인식하지 않은 豫算確保를 해야 할 것입
니다. 國民福祉年金制 같은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나 이에 대한
정부보조등이 實現되어야 하며 低所得層의 生活保障策도 보다 積極
的으로 수립되는 方向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國民은 政府가 해 주기에 앞서 自助하는 精神을
가져야 하며 또 民族統一에 있어서도 어떤 感傷이나 速斷을 禁해
야 합니다.

< 司 會 >

이때까지 여러 先生들께서 北韓의 聯邦制에 관하여 長期間 동안
冷徹하게 分析을 해 주었습니다. 國際法上的의 通念으로 볼 때 그
것은 모호할 뿐 아니라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으로 作用하고 있다는
것도 歷史的 敎訓에서도 잘 認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狀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意見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在元 >

李榮一先生의 說明대로 우리들이 北과 對決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緊要한 것은 體制의 整備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以北과는 體制가 다르니 以北과 같은 劃一的인 體制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相異하면서도 多數의 總和된 意見이 集約된 體制를 確立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爲해서는 政府로서도 特別한 考慮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言論에 있어서도 숨구멍을 터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옛날과 같은 閉鎖社會가 아니라 開放社會입니다. 저는 恒常 「루마」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社會에서 惹起되는 問題가 新聞, Radio, TV를 통해 알려지지 않을때 「루마」가 돕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美國放送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日本 放送이나 新聞等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別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美國放送이나 日本放送 또는 新聞等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은 年令으로 봐서 大略 40代 以上이고 또 어느 程度 知識을 갖고 있어 自己나름으로 判斷할 수 있는 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問題는 이 階層에 屬하지 않는 底辺에 깔려있는 一般大衆의 問題입니다. 이들은 爲先 손쉽게 以北放送을 듣게 될 것입니다. 嶺大의 拘束學生도

이 類에 屬하는 것이 아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萬若에 一般大衆이 以北放送을 듣게 된다면 저희들도 모르게 以北의 Propaganda에 말려들 可能性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問題가 됩니다. 이 點에 對해 저는 關係機關에 從事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10月初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近間 新聞紙上에 學園事態關係記事가 二段 또는 一段이라도 報道되어 言論의 숨구멍이 트인後 美國放送, 日本放送 또는 以北放送을 들었다고 하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點을 特히 政府가 留意하여 北과 對決하는 體制를 確立하여 주기 바랍니다.

<李 榮 一>

무엇보다도 國民總和를 바탕으로 한 힘의 培養이 必要합니다. 그리고 韓半島問題解決을 위해서는 積極的인 姿勢도 重要하지만 그 自体가 正當하게 解決되어야 할 것입니다.

<李 瑄 根>

이 時點에서 強調되어야 할 것은 國內體制의 整備가 重要합니다. 그리고 國論統一도 重要한 課題입니다. 이와같은 點으로 미루어

보아 維新作業이 徹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司 會 >

오늘 「北韓의 聯邦制 統一主張에 대한 批判과 對策」이라는 主題아래 長時間 討論해 주신 것을 司會者로서 감사드립니다.

北韓의 聯邦制主張이 이미 말씀드린대로 國際法上으로도 모호한 概念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通念의 聯邦制 實施를 위해서는 南北韓의 狀況이 造成되지 않고 있음을 指摘하였습니다. 더구나 北韓提案이 그들의 統一戰線戰術과 平和共存理論을 基調로 한 對南 革命戰略으로 看做한다는 것이 一致된 意見이었습니다.

이와같은 北韓提案의 「虛構性」에 대한 우리의 對策은 多角度로 이루어져야 하나 于先 우리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聯邦制가 새로운 國家結合의 모델로서 등장될 可能性도 있다는 事實입니다. 國際法에서 그 結合形態에 관한 아무런 制限條項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點을 考慮할 때 効率的이면서 徹底的한 對內 對外 弘報가 必要하며 아울러 國民總和가 北韓의 宣傳戰術을 沮止하는데 가장 큰 要素임을 自爲해야 할 것입니다.

國民總和는 要約해서 「維新을 維新답게」하는데 있으며 그것은 政府가 率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言論政策을 보다 合理化, 民主化 시켜 健全한 輿論을 바탕으로 한 國論의 統一은 오늘의 主題로 등장한 北韓提案의 聯邦制에 대한 健全한 批判을 남겨 하 는 同時 그것이 바로 우리의 待備衆을 이루는 基本的 要素가 될 것을 믿습니다.

長時間 討論에 參加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5. 結 論

結 論

「北韓의 聯邦制統一主張에 대한 批判과 對策」이라는 主題로서 1日間 가진 研究세미나에서 얻어진 成果는 매우 큰 것이었다.

그것은 地方大學의 關係教授들에게 韓國의 統一政策에 대한 理解와 研究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聯邦制主張」에 대한 올바른 分析과 判斷을 내릴 수 있었으며 이와같은 結果는 南北 對話와 關聯있는 諸問題에 關하여 大學生을 指導하는데 많은 役割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미나에서 얻어진 參加者(國際法·政治學 教授)의 法論은 聯邦制의 分析과 對策面에서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一. 分析 評價

(1) 北韓의 聯邦制統一主張은 國際法の 通念에 비추어 볼 때 概念이 매우 애매한 것이며 그리고 그 實現은 現在의 南北關係로 보아 不可能하다.

단, 한가지 注意할 것은 國際法에서 새로운 國家結合의 形態에 關하여 아무런 禁止條項이 없느니만큼 北韓提案의 「聯邦制」에 대하여 國際法 理論에서만 批判하는 것은 考慮될 問題이다.

(2) 따라서 이 提案은 政治學的 側面에서 考慮되고 分析되어야 한다. 北韓의 全提案은 純粹한 聯邦制主張이라기 보다 提案 經緯 및 內容으로 보아 그것은 그들의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으로 分析·評価될 수 있으며 共產主義者들의 平和共存理論과 統一戰線 戰術로서 利用 宣傳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二. 對 策

北韓의 聯邦制主張에 關한 待備策은 對內, 對外의 講究되어야 하며, 發表論文의 末尾에 記載된 待備策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年의 對策을 添加하였다.

- (1) 北韓의 聯邦制主張에 對한 消極的인 防禦態勢를 止揚하고 南北調節委等을 더욱 能率化 시키는 方案을 提示 그들의 主張을 封鎖함이 必要하다.
- (2) 對內, 對外 弘報政策의 強化가 必要하다. 그것은 繼續하여 北韓이 이와같은 聯邦制案을 提案할 可能性이 充分히 豫想되기 때문이다.
- (3) 聯邦制主張이 對南革命戰略의 一環으로 判斷되는 한 이에 待備한 對策은 國民總和를 바탕으로 한 真正한 維新體制의 確立이 先決條件이다. 그리고 이 維新은 오늘의 우리 社會의 不樂理를 果敢히 維新해야 한다는 權力者의 判斷과 行動이 要請된다.

